

맥도날드, 중국의 유사상표 사용에 골머리

미국의 맥도날드가 중국 기업들의 유사상표 사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세계 최대의 외식업체인 맥도날드를 겨냥한 한 중국 회사가 맥도날드의 로고를 거꾸로 뒤집어놓은 'W자' 모양의 로고를 국가상표국에 등록하자 맥도날드가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원더풀(중국어표기는 완더푸)이라는 그럴 듯한 상표와 로고를 개발한 한이허씨는 '맥도날드와 비슷한 제품을 맥도날드보다 20~30% 싸게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패스트푸드 사업에 관심있는 투자가, 설비업체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는 '완더푸의 W자는 맥도날드의 M자와 아주 비슷하고 고객들이 혼동할 수 있어 맥도날드의 상표의 약화와 영업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다'며 중국 국가상표국에 6kg 분량의 두툽한 반 대 의견 신청서를 제출했다.

원더푸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완더푸는 W가 원더풀(Wonderful)의 이니셜로 발음과 모양상 맥도날드의 M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혼동한다는 것도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가상표국은 아직 완더푸의 상표등록을 유보하고 있는데 '완더푸가 상표등록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앞으로 상표분쟁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맥도날드는 1990년 심천에 처음으로 매장을 열어 중국에 진출, 현재 70개 도시에 55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3만개 매장에서 4백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맥도날드의 상표가치만도 3백30억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맥도날드 외에도 KFC 등 세계적인 외식업체들과의 상표권 분쟁이 수차례 발생했다. 외국 거대기업뿐 아니라 한국의 유명기업 150여개사도 상표도용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데이콤, 농심, 한국인삼공사(정관장) 등도 중국기업이 먼저 상표 등록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을 침해해 상표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중국측이 WTO가입 이후 상표권 분쟁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시장이 워낙 넓은 데다 특허담당 공무원조차 없어 상표 도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 미국의 맥도날드는 중국의 완더푸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내년 초 방수휴대폰 선보여

벤처기업인 워터콤은 방수휴대폰 기술을 개발, 특허를 신청했다. 워터콤은 최근 시연회를 갖고 내년 초 신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 방수 휴대폰은 내장 부품이 방수 기능을 가지도록 하면서도 기존 휴대폰의 날렵하고 부드러운 디자인을 유지할 계획이다.

워터콤 관계자는 '기존 업체의 인기 휴대폰들을 골라서 방수기술을 접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수영복 옆에 휴대폰을 끼우거나, 허리춤에 찔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터콤은 제품화 기술이 완료되는 대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 휴대폰 생산업체들과 기술이전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한편 내년초 방수 휴대폰이 상용화 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휴대폰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로 평가되고 있어 새로운 부가 기능을 계속 개발하지 않고는 시장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이 상황에서 방수휴대폰을 독점 생산하는 업체는 자사의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다른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방수휴대폰의 시장규모와 관련해 워터콤은 '국내시장 뿐만 수출시장까지 계산할 경우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가짜 양주, 휴대폰으로 판별하는 기술 특허출원 중

최근 가짜 양주를 색출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그래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속을 확률은 90%. 이처럼 어려운 가짜 양주 식별을 위해 현대의 최첨단 기술까지 동원되고 있다.

스마트카드 전문 벤처기업 이스마트콤은 휴대폰으로 손쉽게 가짜 양주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특허 출원 중이다.

양주병 마개 주변에 양주 제품마다 고유한 시리얼 넘버(태그)가 입력된 RF칩과 식별 안테나를 부착하여 리더기를 갖다대면 식별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는데 마개를 딸 경우 안테나도 함께 제거된다. 즉 한번 뚜껑을 뜯 양주병은 리더기가 식별할 수 없어 가짜 양주 식별 외에 물류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주 판매사의 제품사용 의향을 타진 중인 상태로 이

칩의 사용이 일반화하면 휴대폰에 리더기를 부착하여 누구라도 쉽게 가짜 양주를 식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

지난해에는 가짜 양주 맛을 분별해내는 '전자혀'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는데 계측기 전문업체 맥사이언스가 개발한 전자혀가 바로 그것으로 술잔에 담으면 제품명과 숙성 연도를 정확하게 밝혀낸다. 그것은 국내 시판 중인 20종의 위스키 성분 분석 데이터가 전자혀 속에 입력돼 있기 때문. 반면 성분이 뒤섞인 가짜 양주의 경우 '해독불능'이라고 알려주기도 하는 똑똑한 기계다. 하지만 뛰어난 원리와 기능에도 불구하고 비용이나 실용성에 대한 의구심 등의 이유로 아직 대중화와는 거리가 먼 실정이며 이번 특허 출원 중인 리더기로 가짜 양주를 식별해내는 것 역시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

러닝머신에도 인터넷 바람

최근 범국민적인 다이어트 열풍과 함께 러닝머신을 찾는 이들이 늘면서 그 기능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제 러닝머신은 단순히 걷거나 달리는 기구에 그치지 않고 운동을 하면서 인터넷을 하고 고화질의 영화를 감상하며 실내에서도 마치 상쾌한 숲속이나 강변에서 조깅을 하는 것처럼 느끼거나 직접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것 같은, 보다 실감나는 환경을 제공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96년 이전 불과 10건에 불과했던 러닝머신 관련 특허출원은 99년 14건, 2000년 31건, 2001년 62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최근 5년 인터넷 관련 러닝머신과 산소발생 공기정화 관련 러닝머신이 각각 20%와 5%의 출원 비중을 차지하는 등 99년 이후 인터넷과 멀티미디어를 접목한 러닝머신과 산소발생이나 공기청정 기능을 갖춘 기능성 러닝머신에 관한 출원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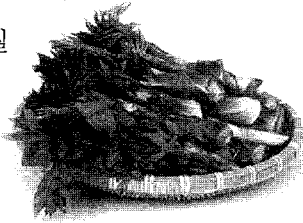
몸에 좋은 우리 농산물

우리가 자주 먹는 농산물에는 기본 체력을 유지시켜주는 단백질을 비롯하여 여러 질환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다. 두릅은 두통과 신경통에 좋고, 쑥은 생리통과 혈액순환에 좋으며, 시금치는 변비와 빈혈에 좋다.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의 효능을 자세히 알아보자.

두릅

두릅에는 단백질과 당질이 많이 들어 있으며 비타민C와 B1외에 칼슘, 칼륨, 디아스타제, 다닌산 등이 들어있다.

발한·보온·이뇨 작용을 하는 두릅은 감기 초기에 줄기를 갈아서 즙을 마시면 효과적이다. 두릅즙을 계속 마시면 두통, 신경통, 류머티즘 등에 도움이 되며 강장제의 역할도 한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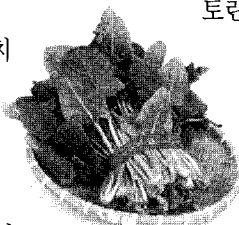
리고 봄에 나오는 새순을 잘라 나물이나 생것으로 무쳐 먹으면 두릅에 독특한 향기와 쓴맛이 식욕을 증진시키기도 한다.

쑥

쑥은 갈슘, 인 등의 무기질 외에도 비타민A와 B1, B2, C가 풍부하고 약효가 뛰어나 널리 이용되는 민간 약초다. 쑥은 특히 여성에게 좋아 요통, 생리통은 물론 산후 하혈이 있을 때 말린 쑥잎을 달여서 꾸준히 마시면 효과가 있다. 또한 쑥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다.

시금치

채소 중에서 비타민A가 가장 많은 시금치는 대표적인 녹황색 채소다. 이외에도 비타민C가 풍부하고 비타민 B1, B2와 엽산 외에 철분, 칼슘, 요오드도 많이 들어있다. 유일한 결점은 시금치에 들어있는 수산을 다량으로 섭취하면 결석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매일 1kg 이상 섭취한 경우의 이야기이므로 보통 정도의 양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다.



꽃고추

식욕증진과 함께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꽃고추는 다른 채소에 비하여 비타민군의 영양소가 풍부하여 여름 타는 것을 예방하는 등 여름철 건강식품으로 뛰어난 효과가 있다. 또한 독특한 향은 식욕을 자극해 밥맛이 없을 때 식욕을 찾아주는데 큰 몫을 한다.

토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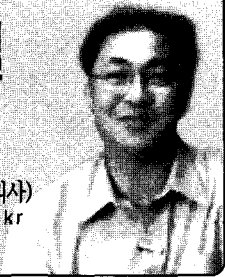
토란의 주성분은 당질이지만, 비만 예방에 좋은 에너지 식품으로 유명하다. 칼륨과 섬유질이 풍부해 피로 회복, 고혈압, 변비 예방 그리고 미용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토란 특유의 미끈거리는 성분은 무턴으로, 신장을 튼튼하게 해주며 소화를 돕고 노화 방지에도 한몫을 한다. 토란은 열을 없애고 염증을 가라앉히므로 토란의 껍질을 벗기고 갈아 밀가루에 섞어 환부에 발라 찜질하면 타박상, 어깨결림, 류머티즘 증세에 효과가 있다.

단 한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토란을 생으로 먹으면 중독 증세를 보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리해서 먹어야 한다는 것.

기고문

공지제외설



백건수(백건수특허법률사무소·변리사)
e-mail: patpen@patpen.co.kr
문의전화 (02)538-3951

공지제외설(公知除外說)이란 산업재산권 법전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고 판례에서 사용하는 단어이다. 산업재산권의 권리를 해석함에 있어서 공지제외설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공지제외설이란 심사에 합격하여 등록된 유효한 권리에 그 권리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알려진) 기술이 포함된 경우 그 공지된 부분은 권리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즉 무효심판에 의해서 무효로 되지 않더라도 공지된 부분은 권리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지제외설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민사재판, 형사재판, 심판에서 모두 적용된다.

공지제외설은 몇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로 전부공지제외설이 있는데 이는 권리 전체가 공지된 것이다. 즉 특허권 경우 하나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이 전부 공지된 내용만으로 구성된 경우이다. 이 경우는 사실상 무효심판에 의해서 무효로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침해자측에서 전부공지제외설을 주장하면 침해 사실을 모면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침해자측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전부공지제외설'을 주장하고 이를 심판부에서 받아들여 준다면 상대방의 권리는 거의 무효인 셈이 되는 것이다.

둘째로 일부공지제외설이 있다. 일부공지제외설은 권리의 일부로 공지된 부분은 그 권리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경우에는 하나의 청구범위 중 일부가 공지된 경우를 말하고 전체 청구범위 중 하나의 청구범위가 공지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의장권의 경우는 유사판단을 물품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부공지제외설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권리해설시 각 구성요소마다 공지된 것인지 아닌지를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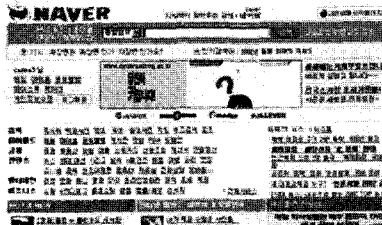
셋째로 자유기술의 항변이 있다. 이는 권리와는 관계없이 침해품이 그 권리의 출원일 이전부터 공지된 경우 그 물품은 계속 만들어지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함이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권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권리와 침해품 간의 기술적 동일성 판단을 하지 않고서 침해품이 '공지된 것인가 공지되지 않은 것인가'만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공지제외설은 상표권에서도 유사한 패턴으로 적용된다. 즉 등록상표권에 식별력이 없는 단어(주식회사 등)가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은 권리에서 제외된다. 등록 상표 전체가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도 그 전체가 권리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권리 해석에 있어서는 항상 구성요소별로 그 가치를 따져 보아야 한다. 이를 구성요소 가치론이라 칭한다. 또한 침해 경고를 받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전에 공지된 사실을 찾아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네이버 특허소송에 휘말려

인터넷 검색광고 방식 BM특허 분쟁이 결국 법정으로 비화됐다. 인터넷 비즈니스 업체인 소프트아이네스트는 지난달 11일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주)을 상대로 특허 침해 금지 및 8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소프트아이는 '네이버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키워드 검색 방식은 우리가 지난 2000년 4월 특허를 출원해 정식 특허등록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 업체들과 수차례 협상을 시도했으나 해당 업체들이 이를 거부했으며 여타 군소업체들까지 특허 침해가 확산되고 있어 우선 NHN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며 현재 분쟁 중인 다음과 엠파스 등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낼 것을 밝혔다.

창작·발명까지 영재교육에 포함

서울시교육청이 영재교육 대상자를 2007년까지 8천명으로 늘리고 교육 분야도 인문사회까지 넓히기로 하는 등 영재교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달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65학급의 1천2백10명인 서울 시내 영재교육 대상 학생수를 연차적으로 2007년까지 8천명으로 크게 늘릴 방침이다. 교육 분야도 과학, 수학, 정보, 미술, 음악, 영어 등 6개 분야에서 창작, 발명, 인문사회까지 포함시켜 영재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중·고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영재교육을 올해부터 초등학교까지 확대했으며 중학생의 경우 '영재학급'으로 운영중인 서울 한성과학고를 '영재교육원'으로 전환했다. 영재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기관은 영재교육원 위주로 하고 영재학급은 가급적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해외 영재 전문가를 초빙하는 연수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며 영재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영재교육기관에 영재성 판별 도구와 운영 프로그램, 교수법, 학습자료 등을 개발 보급하고 담당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연수도 실시하기로 했다.

기능성 저금통 특허 쏟아진다

멜로디 칩이나 센서 등 반도체 기술을 이용한 기능성 저금통의 특허출원이 잇따르고 있다. 특허청은 단순히 돈만 수납·보관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반도체나 디지털기술 등을 이용한 다양한 기능의 저금통이 최근 5년간 출원된 관련 특허 97건의 43.3%인 42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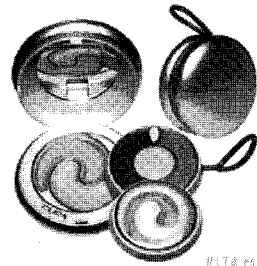
지난 9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간 특허가 출원된 기술내용을 분석해보면 오락기능 17건, 음향발생기능 5건, 저축액 표시기능 17건, 목표금액 설정기능 3건 등 시청각 기능 관련 출원은 42건이다. 또 연필꽂이 등 실용적 기능을 부여한 것도 12건이나 된다.

기능성 저금통을 보면 동전식별센서를 장착하거나 투입된 돈을 연산하는 마이콤, 연산값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부가 설치돼 동전을 넣을 때마다 저금한 금액이 표시되는 디지털저금통이 나와 있다. 또 멜로디 칩과 스피커가 설치돼 다양한 소리가 나기도 한다.

한편 지난 7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저금통과 관련된 출원은 총 2백86건이다.

생활 속의 지혜

화장품 오랫동안 보관하기



트윈 케이크 등 수분 함량이 적은 색조화장품은 직사광선이나 습기를 피하도록 해야 한다.

사용 기한은 적혀 있지 않고, 제조연월일만 표시된 대부분의 화장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 유통기한일까?

제품마다 성분이 달라 기간을 못박기 힘들지만 대체로 개봉하지 않았으면 3년, 개봉한 후에는 1년 정도라는 것이 화장품 업계의 통설이며, 스킨·로션·크림·클렌저·자외선 차단제 등 대부분의 기초 화장품이 여기 해당한다.

립스틱·파우더·펜슬형 아이라이너처럼 수분이 적은 색조 화장품은 직사광선이나 습기를 피해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5년 정도 유지된다. 반면 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스카라는 개봉 후 4개월을 넘기지 말고 다 쓰는 것이 좋다.



스킨, 로션, 크림 등 기초 화장품은 개봉 후 1년 정도가 유효기간이다.

또 100% 천연재료로 만든 기초 제품은 개봉 후 3개월 이내에, 천연재료로 만든 헤어 제품이나 보디 제품도 6개월 이내에 빨리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비타민 C·E가 들어간 기능성 제품도 일단 개봉하면 쉽게 산화(酸化)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사용해야 한다.

화장품은 상온 보관이 가능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쪽에 화장대가 있다면 화장대를 그늘진 곳으로 옮겨야 한다.

요즘 화장품 냉장고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화장수나 젤 타입 제품은 화장품 전용 냉장고나 온도가 너무 낮지 않은 냉장실 하단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냉장고에 넣었다 꺼냈다가 반복하면 오히려 화장품이 급격히 변질되므로 한 번 냉장고에 넣은 제품은 계속 들것.

노화 방지 화장품의 주원료인 레티놀 함유 제품도 고온에서 주요 성분이 파괴될 가능성이 있어, 섭씨 5~14도 가량에서 시원하게 보관하는 것이 좋다. 반면 크림이나 에센셜 오일 등 오일 성분 제품은 차게 보관하며 좋지 않다. 오일 성분은 온도가 내려가면 굳어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트윈 케이크나 파우더 등 수분 함량이 적은 색조 화장품은 직사광선이나 습기만 피하면 까다롭게 관리하지 않아도 다른 화장품보다 오래 쓴다. 단 색깔이 변했거나 굳어서 퍼프에 잘 묻어나지 않으면 변질된 것으로 봐야 한다.

[광고문의]

(사)한국여성발명협회
(02)538-2710